

운동회, 놀이의 근대성과 ‘몸’담론

—김남천의 『대하』 연구

류수연*

1. 서론
2. 운동회, ‘몸’에 대한 열광
3. 놀이의 근대적 재편
4. 결론

국문요약

근대를 관통하는 핵심. 그것은 바로 ‘몸’, 즉 인간의 신체를 근대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노력들이다. 본고는 이러한 ‘몸’담론 위에서 김남천의 『대하』를 새롭게 읽어내고자 한다. 그 중심에는 운동회가 있다. 주인공 형걸의 근대성은 그의 신체를 통해 표출되며, 운동회는 근대적 볼거리로서 신체훈련과 경쟁을 보여주는 장소로 기능했다. 이러한 운동회는 근대적 표상으로서 신체에 대한 인식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견인한다. 동시에 놀이의 근대적 재편을 주도하고 전시하는 효과까지 내포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만 한다. 이에 본고는 운동회라는 근대적 제도를 분석하고, 이것이 『대하』의 인물 형상화에 끼친 영향과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김남천의 『대하』는 사색하는 신체에서 운동하는 신체로의 전환을 실감하게 해주는 텍스트로서 새롭게 분석될 수 있다. (주제어 : 김남천, 『대하』, 놀이, 몸, 운동회, 전시, 근대교육, 스포츠의 대중화)

* 인하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의교수

1. 서론

김남천의 대표작이자 그의 문학적 전환으로 평가되는 『대하』는 그동안 김남천 문학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졌던 작품이다. 이러한 『대하』에 대한 연구는 크게 네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첫째, 풍속 및 세대성을 강조해서 보는 흐름이다.¹⁾ 이는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인 형준, 형선, 형걸을 통해 드러나는 노름, 혼례, 운동회 등의 동시대적 풍속에 주목하는 논의이다. 둘째, 김남천 창작방법론의 구체적인 발현으로서 보는 흐름이다.²⁾ ‘로만개조론’과 ‘모랄론’으로 대표되는 김남천의 창작이론을 통해 작품을 해석하는 태도이다. 셋째, 가족사소설의 대표작으로 이 작품을 평가하는 태도이다.³⁾ 이는 신문매체의 확대와 함

1) 김동환, 「1930년대 후기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풍속’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15, 1990.

김재남, 『김남천 문학론』, 태학사, 1991.

송하춘, 「1930년대 후기 소설논의와 실제에 관한 연구-김남천의 〈대하〉를 중심으로」, 『고대인문논집』 35, 1990.

안함광, 「최근의 작품경향」, 『인문평론』, 1940.7.

이덕화, 『김남천 연구』, 청하, 1991.

임화, 「최근 소설의 주인공」, 『문장』, 1939.9.

2) 김지형, 「김남천과 임화 문학의 식민지 이성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백철, 「〈대하〉를 독함」, 『동아일보』, 1939.2.8.

권혁준, 「김남천 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신상성, 『김남천 연구』, 지학사, 1992.

이영애, 「김남천 소설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3) 김영선, 「1930년대 가족사 소설 ‘인물’의 가문의식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류종렬, 「1930년대말 가족사 연대기 소설의 개념과 특성」, 『한국문학논총』 11집, 한국문학회, 1990.

원은영, 「가족사연대기소설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이재선, 「김남천 소설의 양상」, 『현대문학』, 1989.6.

게 진행된 1930년대 장편소설화 경향 안에서 『대하』의 문학사적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성권과 세 아들의 삶을 통해 조선 근대사의 궤적을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마지막으로 카프 해체 이후 전향의 측면에서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⁴⁾

이러한 기존 연구사는 무엇보다도 근대 초기 개화풍경의 재현으로서 김남천의 『대하』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공통분모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단연 주목되는 것은 형식의 혼례장면과 실질적인 주인공인 형걸의 면모가 부각되는 운동회 장면이다. 『대하』에서 가장 치밀하게 서술되고 묘사되었던 두 장면은 전근대와 근대를 대비시키며, 근대적 풍속의 결정적인 승리를 예감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근대 풍속을 보여주는 세태성 논의 안에 가두어지면서, 정작 『대하』의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가치로서 '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간과되었다는 데 있다.

근대의 수많은 담론을 관통하는 핵심. 그것은 바로 '몸', 즉 인간의 신체를 근대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노력들이다. 개인의 각성이라는 계몽적 당위와 함께 그 개인을 온전히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신체는, 근대성적 표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확보하게 된다. 우생학으로부터 위생, 청결, 제국과 군대, 체육, 의학, 노동, 더 나아가 미용과 패션, 유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근대적 담론의 토대이자 바탕은 바로 이 몸을 둘러싼 육체성이기 때문이다. 근대의 출발점이 개인의 각성이라면, 신체는 그 각성된 개인의 내면을 드러낼 외적 표지라는 점에서 근대성의 표상으로서

이주형, 「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한승옥, 「1930년대 가족사 연대기 소설 연구」, 『송실어문』 5집, 1988.

4) 김윤식, 「1930년대 후반기 카프문인들의 전향유형 분석」, 『한국현대문학사상사론』, 일지사, 1992.

——, 「자기 고발과 주체성 재건에 대하여」, 이상갑 편, 『김남천』, 새미, 1995.

주목받았다. 따라서 근대 계몽담론이 형성되던 1890년대에서 1910년대 까지가 ‘몸’이라는 새로운 화두에 계몽과 개화라는 수사를 덧붙이는 시기였다면,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는 그 화두에 내재된 실질적인 근대성을 확인하고 확장해 나가는 시기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김남천의 『대하』를 새롭게 읽어내고자 한다. 『대하』를 이끄는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형걸의 근대성을 육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의 신체이며, 그것이야말로 이 ‘몸’을 둘러싼 초기 근대의 풍경을 가장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몸’이라는 화두와 더불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은 ‘놀이’의 근대성이다. 건강한 신체에 대한 동경과 그 신체를 단련하는 놀이의 발견이야말로 『대하』가 보여주는 근대적 풍경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이 점에서 본다면 『대하』의 핵심적 사건으로서 ‘운동회’는 근대의 외적 표상으로서 신체에 대한 인식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요구한다. 특히 운동회는 박성권의 세 아들 중에서 서자인 형걸이 새로운 시대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서사적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형걸이라는 인물의 내적 변화를 이끄는 동시에, 근대라는 새로운 문물의 선구자로서 그를 무대의 전면에 세우는 결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대하』라는 세계를 구성하는 내적 원리로서 ‘몸’의 담론에 바탕하여 새로운 지평 위에서 그 서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운동회라는 근대적 제도가 소설의 인물 형상화에 끼친 영향과 기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 중심에는 근대적 신체에 대한 대중의 열광이 놓여 있다. 형걸과 일련의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세 여인들—보부, 쌍네, 부용을 매료시킨 요소는 다름 아닌 형걸의 건강한 신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색하는 신체에서 운동하는 신체로의 인식적 전환은 『대하』를 재조명

하는 또 다른 분석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운동회, '몸'에 대한 열광

신체는 근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근대 이전의 학문이 심(心)을 닦아 신(身)을 바르게 하는 것이었다면, 식민지 근대는 신(身)을 강건하게 함으로써 심(心)도 굳건히 할 수 있다는 인식적 전환 위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신체에 대한 관심과 열광은 근대가 만들어 낸 새로운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김남천의 『대하』는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인 개화기를 무대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 건강한 신체를 가진 근대적 인물을 형상화했다. 그 주인공인 형걸이 서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넘어 근대인으로서 거듭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운동회이다.

김남천의 『대하』는 대략 1900년대 말에서 1910년대 초반을 그 배경으로 한다. 이 시기는 조선을 강제병합하려는 일제의 야욕이 구체화되던 때이며 동시에, 각지에 다양한 사립학교가 개교하면서 신교육에 대한 열망이 고취되던 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학교운동회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진 시기'⁵⁾이기도 하다. 작품의 후반부에 나오는 동명학교의 운동회 장면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부터 그 모티프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동회는 성천이라는 작은 도시까지 잠식해버린 근대의 압도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반부에 나오는 형선의 혼례식 장면이 성천이라는 작은 도시에 밀려드는 근대문물의 확산을 보여준다

5) 김성학, 「근대 학교운동회의 팽창: 그 실태와 동인」, 『한국교육사학』 33권1호, 한국교육사학회, 2011, 1쪽 참조.

면, 운동회 장면은 이 근대문물의 필연적 승리를 보다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운동회에는, 평양서 대성학교와 일신학교 학도가, 각각 열명씩 온 외에, 용강(龍岡)과 강서(江西)와 영유(永柔)의 앞대에서 다섯 명 여섯 명씩 참가하였고, 가까운 고을에선 순천이 빠지고, 은산, 자산서 열 명씩, 그리고는 이 고장서 고을보다도 먼즈 개화사상을 받아들인 대드리, 갯고지, 남전서 학교생도 전부가 거진 참여하여서, 동명학교 학도 까지 합하니 이백오십 명이 훨씬 넘었다. 동명학교 학도 중에는 머리를 아직 깎지 않은 학생까지 있어서, 운동회에 참여하지 않는 작자까지 있었으니 제복도 일치 하지 못했으나, 평양이나 앞에서 온 학도들은, 무명예다 검정물을 덮어서 양복을 일치하게 해입고, 신발은 그대로 참신이나 메투리나 집신이었으나, 흰각반까지 한결보 깎듯하니 올려쳤고, 한두 명씩 나팔수까지 끼여 있어서, 그 북색하며, 조련하며, 거동이 제법 군대처럼 놀라웠다.⁶⁾

인용문은 단어를 맞이하여 열린 동명학교의 운동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안도 곳곳에서 모인 학도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이 부분은 『대하』의 시간적 배경을 추측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김남천은 『대하』의 시대적 배경이 1906년이라고 밝힌 바 있다.⁷⁾ 주인공 형걸과 형선이 다니는 성천의 동명학교가 개교한 시기가 1906년이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실제 작품의 서술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다소간의 오류가 존재한다.

먼저 갑오년(1894년)에 스물 서너 살이었던 박성권이 작품의 현재에 서는 마흔 살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작품의 현재는 대략 1911~1912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품 내부에서 체육교사인 정영근과 잡화상 주인 나카니시와 같은 주변인물 묘사를 근거로 보면 모순이 발생한다. 서술

6) 김남천, 『대하』, 백양당, 1947, 357~358쪽. 이하 인용문은 띄어쓰기는 현대표기법에 맞추고, 서지사항을 생략하고 인용쪽수만 표기하겠음.

7) 김남천, 『직업과 연령』(『조광』, 1940.11.), 『김남천 전집』 1, 박이정, 2000, 644쪽 참조.

에 따르면 진위대의 장교였던 정영근은 해산 후에 동명학교 체육교사가 되었다. 여기에 더해 나카니시는 진위대 해산 후에 생긴 수비대의 용달을 1년 정도 맡아 부를 축적해서 잡화점을 차렸다는 서술이 나온다. '진위대가 해산된 것이 1907년이므로 이 작품의 배경은 1908년보다 이전이 될 수 없다.'⁸⁾ 따라서 김남천이 말했던 1906년보다는 박성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1911년 전후를 시간적 배경으로 보는 것이 일면 더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모순되는데, 그 이유는 작품 속에서 경술국치(1910년)에 따른 사회적 동요가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자면 작품의 배경은 최소한 1910년 이전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의 서술이 실제 역사적 사건과 모순되는 것은 기록이 아닌 기억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운동회 때 어데어데서 올려너지 몰루나, 안죽.』 하고 길손이가 손을 조끼주머니 속에서 아무찍거리며 물으니, 말을 멍하니 바라보든 대봉이가, 『작년에 폐양 왔던 고장선 거반 다 올게다. 그렇거든 위선 폐양.』 하고 넘뜨려 손을들어 곱으면서, 『선천, 은산, 자산, 영유, 강세, 농강, 이견만 해두 날급이지, 거기다가 대드리에서 올게구, 기창이랑 아마 이런 데서두 올게다. 강동이랑 양덕 촌놈덜두 올레나. 아마 거진 안죽뚜 학교가 없는지두 몰라.』⁹⁾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지는 연합운동회의 직접적인 모티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인용문에서 대봉이의 대화를 살펴보면, 성천에서 열린 이 연합운동회 이전에 평양에서 최소한 1회 이상의 연합운동회가 열렸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1908년 4월에 평안남북도 각 학교의 대규모 연합운동회가 평양에서 개최'¹⁰⁾

8) 김종욱, 『김남천의 <대하>에 나타난 개화풍경』, 『국어국문학』 147, 국어국문학회, 2007, 106-109쪽 참조.

9) 113-114쪽.

되었고, 이후 평안도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연합운동회가 이어졌다고 한다. 이것이 이 작품의 직접적인 모티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시미 순야에 따르면 이러한 운동회는 “근대의 국민국가가 스스로 권력의 새로운 포메이션의 하나로서 발명하고 연출한 전형적인 ‘근대 마쓰리’의 하나”¹¹⁾로 기능한다. 그것은 제국의 건립을 위해 군인이 되어줄 건강한 신체를 조련하는 공적인 교육제도이면서, 동시에 마을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 의식으로 엮어주는 축제로서 기능하기도 했다. ‘일본 최초의 운동회로 알려진 것은 1874년 도쿄 쓰키지의 해군학교 기숙사에서 개최된 ‘교토요기카이(競鬪遊戯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운동회가 학교의 연중행사가 된 것은 1890년대 전후였다”¹²⁾ 운동회를 중심으로 메이지 정부는 근대스포츠 장려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제국의 건설’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를 동원하는 것은 제국의 토대였고, 운동회는 그에 합당한 신체를 가진 ‘국민’을 탄생시키기 위해 훈련하고 조련하는 경연의 장이었다. 더 나아가 운동경기에 참여하고 응원함으로써 강력한 공동체 의식까지 함양할 수 있었다.

일본의 운동회가 제국이라는 거대한 목표 위에서 조직되었다면, 그러한 일본의 제국적 야욕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던 조선에서 운동회는 보다 복잡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조선 최초의 운동회는 ‘1895년 4월 18일, 김윤식을 비롯한 온건개화파가 만든 일본식 교육기관인 을미의숙(乙未義塾)에서 개최된 대운동회’¹³⁾와 ‘1896년에 영어학교의 화류회’¹⁴⁾

10) 김성학, 위의 글, 2쪽 참조.

11) 요시미 순야, 『국민 의례로서의 운동회』, 『운동회-근대의 신체』, 요시미 순야 외, 이태문 역, 논형, 2007, 20쪽.

12) 같은 글, 22-24쪽 참조.

13) 황의룡, 『일본과 한국의 근대화와 운동회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0권2호, 한국체육과학회, 2011, 9쪽 참조.

14) 황의룡, 위의 글, 11쪽 참조.

이다. 이 시기 운동회는 일본의 초기 운동회와 마찬가지로 꽃놀이를 겸해 몇 가지 육상 경기를 겨루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운동회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의 체결 이후이다. '이 시기 운동회는 연합운동회의 형태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는데, 군대와 같은 사열이나 체조, 육상, 기마전과 같은 종목이 주류를 이루었다.'¹⁵⁾ 이것은 바야흐로 운동회가 제국주의에 합당한 '국민의 신체'라는 구체적인 목표에 봉사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점차 규모가 커진 운동회는 실질적으로 군사훈련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대하』의 서술에서도 확인된다. 보다 개화된 지역인 평양에서 온 학생들은 “그 복색하며, 조련하며, 거동이 제법 군대처럼 놀라”웠다고 표현되는데, 이는 이미 평양 지역에서는 운동회의 성격이 군사훈련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김남천의 『대하』는 이러한 근대초기 운동회의 성격과 내용을 실감나게 구체화시킨 텍스트라는 점에서 일종의 스포츠 서사라고 명명할 수 있다. 초반부에 나오는 형선의 혼례 장면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성천에서 열리는 연합운동회의 준비단계에 맞추어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인공 형걸과 그의 동명학교 친구들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장면에서 단오 운동회는 가장 중요한 화젯거리가 된다. 형걸이 주요 서술 대상이 되는 장들은 직간접적으로 운동회와 관련되는데, 그 빈도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황성신문』, 1907.5.3., 1907.10.26. 참조.

등장	내용	의미
4장	형걸의 단발	내적 요인은 형선의 혼례식으로 인한 좌절감을 다른 표출이나, 외적 요인은 곧 있을 운동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5장	달리기 시험	단오에 있을 대운동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달리기 시험도 한다. 이 장면은 형걸과 쌍네의 필연적 만남에 시간적 개연성을 부여한다.
7장	연합체조	함께 체조를 하면서 칠성이네에 자전거 구경을 가기로 계획. 이 과정을 통해 형걸뿐만 아니라 동년배 친구인 대봉이의 애욕과 평양(개화)에 대한 동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이와 연이어 형걸과 쌍네의 만남도 또 한 번 이루어진다.
11장	전도	형걸과 그 친구들이 예배당에 출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그것은 동명학교 이전에 다녔던 기독교의 영향이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전도하러 다니던 와중에 형걸과 부용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12장	나까니시 상점	평안도 연합운동회를 미리부터 준비하는 나까니시 상점의 모습이 도입을 장식한다.
15장	단오 대운동회	운동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형걸의 활약을 통해 이 작품에서 형걸이라는 인물이 가진 성격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평안도 각지에서 몰려든 청년들의 모습과 경기는 근대가 가진 압도적인 힘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부용에 대한 박성권의 애욕이 구체화되면서, 향후 부자간의 갈등이 일어날 것임을 예감하게 한다.

총 16장으로 구성된 『대하』에서 6개의 장에서 운동회와 관련된 사건들이 제시된다. 『대하』 전체를 놓고 보아도, 단오 대운동회가 이 작품의 절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운동회는 형걸이라는 인물을 근대의 계승자로 성장하게 하는 직접적인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주목된다. 형걸은 운동회 연습을 전후로 하여 그와 연애관계에 놓이는 쌍네와 부용, 두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된다. 또한 대운동회라는 대규모의 근대적 축제는 애욕으로만 충만했던 형걸을 변화시킨다. 새로운 문물과 근대적인 사람들, 대중의 환호성을 통해 형걸은 육체적인 운동으로 내면을 성찰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

라서 운동회가 끝난 뒤, 다시 마주친 쌍네 앞에서 형걸이 이전과 달리 애욕이 아닌 모랄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남천은 신흥 부호 박성권의 가족사로 조선의 근대를 재조명하고자 했다.¹⁶⁾ 이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운동회는 이 가족사 연대기 소설에서 김남천이 보여주고자 했던 근대성을 가장 핵심적으로 응축한 제재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비단 박성권의 세 아들 중에서 서자인 형걸이 근대의 계승자로 선택된 것 때문만은 아니다. 운동회는 한 개인의 근대적 성장을 견인하고 전시하는 것임과 동시에, 전통적인 삶의 붕괴와 초기 상업주의의 도래를 가장 비약적으로 보여주는 마당이기도 했다. 전통적인 상업 방식을 유지했던 박리군 형제의 몰락과 신문물을 발 빠르게 들여왔던 나가니시 잡화점의 성장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눈치 빠른 나가니시네가 단오 전에 한차판을 실어온 잡화상품은, 단오도 되기 전에 대부분이 팔이어서, 그는 땀까지 운동회 때 쓸 상품을 더 첨가해서 다시 한 달구지 가까운 짐을 평양서 해왔다. 집집이 남포동 없는 집이 없고, 양말 신지 않은 젊은이가 드물었다. 대패밥으로 만든 농넙도 순식간에 팔려버렸고, 땃통식 해온 히로담배도 나래가 돛친 듯이 사람사람의 호주머니 속에 날러가 들었다.¹⁷⁾

이처럼 김남천은 운동회라는 축제가 가진 폭발성과 찰나성을 통해 조선사회에 근대가 어떻게 밀려들었는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삶의 모습과 개개인의 내면을 변화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몸'에 대한 근대적 열광을 전시함으로써 운동회는 형걸이라는 한 인물의 성장과 모든 인간관계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사건으로서 자리 매김 된다.

16) 김남천, 『작품의 제작과정』, 『조광』, 1939.6.; 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2000, 498쪽 참조.

17) 354쪽.

3. 놀이의 근대적 재편

근대체육의 등장은 무엇보다도 신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다. “도덕과 예의 수양에 역점을 두었던 유교 교육의 테두리 내에서 형이하학이자 폐도의 길로 간주되던 운동, 신체, 힘, 근육, 강병(強兵)”¹⁸⁾이 새로운 시대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러한 근대체육의 향연으로서 운동회는 무엇보다도 놀이를 근대적으로 재편한다. 엄밀히 말해 근대 이전까지 놀이는 아이들의 전유물이었다. 고된 육체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평민이나 학문수양에 힘써야 하는 양반에게 놀이할 수 있는 여가는 존재하지 않았다. 활쏘기나 말타기와 같은 성인남자의 놀이는 몇몇 부유층에게나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놀이문화의 발전을 저해한 것은, 육체적 활동을 정신적 활동보다 낮게 보는 사회 분위기였다. 운동회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교정하고 개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생들 간의 경연을 넘어서, 근대스포츠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전시적 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넓은 운동장 안에서 지금 한창 경기 중에 있는 줄다리기를 흥미 있지 바라보고 있다. 학도 전보를 두 번에다 나누어서, 그것을 다시 두 패로 갈라갖고 굽고 길다란 줄을 양쪽에서 당기는 것이다. 한편에서 발을 벗드디고 힘을 다하여 「영차, 하면 또 한편에서도 이를 악물었다가 「영차, 하고 맞당기어, 굽은 닷줄은 활쩍처럼 끈게 움직일립을 앓 한다.¹⁹⁾

「기마전이라면 말을 타고 싸우는 것인가요.」

「말이야 있겠소마는, 어떤 자는 말이 되고 어떤 자는 기수가 되겠지요.」 하고

18) 김현숙, 「개항기 '체육' 담론의 수용과 특징」, 『한국문화연구』 2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4, 116쪽.

19) 361쪽.

대답하는 이가 있다.

『추립』 소리가 나고 『기척』, 『우로 나라니』, 『번호』 소리가 연다라 난 뒤에, 두 패로 갈려 선 학도들은, 각각 인솔자의 뒤를 따라 운동장 가운데로 들어온다.²⁰⁾

단오라는 전통적인 축제를 계승하고 있지만, 운동회는 이전의 단오 축제에서 볼 수 없었던 다른 방식의 놀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의 축제는 '대동'이라는 목표 아래 모두가 어우러지는 것을 중시했기에, 이러한 축제에서 벌여졌던 여러 민속놀이들은 승자와 패자를 구분한다기보다는 다함께 즐기는 것에 가까웠다. 그러나 운동회는 이러한 놀이를 "형식적인 조직에 의해 제도화되며,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합법화된 규칙을 가지고 있고, 정해진 참가자들의 수와 게임장소, 게임 시간이 있으며, 선수와 관객 사이에도 엄격한 구분이 존재"²¹⁾하는 근대스포츠로 적극 재편한다. 승자와 패자가 철저히 구분되고, 적군과 아군이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게임의 룰은 전통적인 민속놀이에서 볼 수 없었던 흥분을 대중에게 선사한다. 따라서 운동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운동회로부터 주인공 형걸의 성격이 결정된다. 형걸에 대한 서사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장면에서 그는 무엇인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는 말을 타고 나가, 동명학교 친구들과 달리기 시합을 하거나 씨름을 하고, 운동장에서 체조를 한다. 이러한 그의 신체활동은 그대로 그의 가장 중요한 매력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운동하는 신체를 가진 남성 주인공의 탄생은 대단히 흥미롭다.

이는 무엇보다도 『대하』가 창작된 1930년대의 시대적 조건으로부터

20) 363쪽.

21) 김주리, 「근대적 신체 담론의 일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13, 한국현대문학회, 2003, 27쪽.

기인한다. 사색하는 주인공에서 운동하는 주인공으로의 전환을 견인한 것은 다름 아닌 올림픽이다. '1930년대에 일본에서는 본격적으로 스포츠 대중화 시대가 열리는데, 이는 1931년의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스포츠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쳤기 때문이다.'²²⁾ 더 나아가 도쿄가 1940년에 열리는 올림픽의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가열되었다.²³⁾ 이러한 일본의 분위기는 조선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일본인이 세운 조선의 학교에서는 운동회가 적극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 장편소설에서 운동에 재능을 가진 만능 스포츠맨형 남성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었던 보다 결정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바로 동아일보의 일장기말소사건으로도 유명한, 손기정 선수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획득이다. 이는 근대스포츠와 그 경연방식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이끌었고, 김남천은 『대하』에서 그러한 독자들의 기호를 적극 반영하였다. 달리기, 줄다리기, 기마전 등 운동회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룰과 경기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마라톤에서의 금메달 획득이 근대적 영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제공한 것이다.

붉은끈을 머리에 둥인 형걸이를 오른편쪽패 첫머리에서 발견하고, 잠시 그의 거동을 눈붙여 보았다. 옷저고리는 벗어붙여서 흰 속적삼만 입은 형걸이가, 세 사람으로된 말안장을툭툭 두들어 보면서, 기고만장하야 싱글벙글하고 있는것이 보이었다.

—그렇게 내세우고보니 그놈만한 인물이 없겠군—하고 박참봉은 속으로 만족

22) 김옥희, 『일본 근대문학과 스포츠』, 소명출판, 2012, 95쪽.

23) 1940년 하계 올림픽은 본래 도쿄에서 열린 계획이었으나 중일전쟁으로 개최권이 핀란드 헬싱키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마저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하니 그를바라보고 있다.²⁴⁾

결국 『대하』에서 가장 근대적인 인물인 형걸의 인물됨을 형상화하는 것은 바로 그의 외적인 아름다움이다. 그것은 단지 얼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많은 운동으로 단련된 강하고 다부진 그의 신체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작품 전반에서 그가 말을 타고 있거나, 씨름이나 달리기 같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게다가 일단 시작하면 또래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다. 후반부의 절정인 운동회에서도 동명학교 출신 중 가장 두드러지게 활약하는 것은 바로 형걸이다. 그러나 형걸이 새로운 시대의 계승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요인은 단지 뛰어난 운동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힘은 그가 '놀이'의 근대적 재편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것을 주동했던 인물이라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단발'은 그 시작점이다.

선뜩하고 쇠가 형걸이의 ○석에 와 닿는다. 그리드니 똑딱 소리를 연신 내이면서, 찬 금속물은 머리를 한박퀴 오루내린다. 머리에 부는 바람이 갑자기 차서 등 굽이 산뜩하였다. 머리채가 털석하는 소리를 내이며 귀옆을 스쳐서 그의 눈앞까만 흙 마당우에 떨어져 땡군다. 그러나 기계는 아직도 머리를 다스리노라고 그냥 오루내리기만 한다. 빗자루로 머리를 확확 쓸어내리니 씨완하기는 비할 데 없으나, 또 한편으론 것잡을 수 없는 서운한 생각이 뿌옇하니 가슴을 처발였다. 바른 손으로 가만히 머리를 만져보니, 어느 때 같으면 기름진 머리鬚이 미춧할 텐데, 바늘 끝처럼 손팍을 찌르면서 착각(錯覺)같이 손은 허전허전하다. 내것이 아닌 것처럼 손맛이 원통 변해버렸다.²⁵⁾

'단발'은 형걸을 매력적인 근대인으로 변모시킨다. 동시에 그것은 근

24) 363쪽.

25) 88-89쪽.

대적인 신체를 견인한다. 단발을 하고 나면 거기에 걸맞은 몸가짐과 옷차림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형걸 역시 단발한 이후에 또래와 보다 격렬한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단발은 운동회라는 근대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기도 했다. 운동회는 서로 간의 힘을 겨루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었지만, 이 축제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운동회라는 근대적 제도에 맞는 외양을 갖추어야만 했다. 이것은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창작된 이기영의 『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느날 신참위는 학교에 평의회를 소집하고 이와 같은 학도들의 머리에 대한 공기와 시대풍조를 들어서 일장 연설한 뒤에 도대체 학교라는 곳은 군대와 같은 것인데 학도들이 머리를 그대로 두고 다닌다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일제히 깎아지른 주장을 해보았다.²⁶⁾

인용문은 당시 학교 교육의 관계자들이 학교를 군대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구호에 따라 정확하게 행동하고 일률적으로 동작을 맞추어야 하며 그를 통해 집단적인 행동의 방침을 습득하는 것. 그것이 근대적 학교가 최초로 요구한 학습이었던 것이다.”²⁷⁾ ‘단발’은 그 요구를 습득했다는 외적인 표지였다. 운동회를 위해 단발을 요구하는 것은 『대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동명학교 학도 중에서 머리를 깎지 않은 학생은 운동회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서술을 통해 단발이야말로 운동회에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운동회는 단발로 대표되는 근대적인 생활 방식과 풍속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따라서 상학나팔을 불기 위

26) 이기영, 『봄』, 풀빛, 1989, 275쪽.

27) 김주리, 앞의 글, 22쪽.

해 형걸이 스스로 단발한 것만으로도, 작가는 이미 그가 이 새로운 시대를 능히 이끌어 나갈 계승자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형걸은 놀이의 근대적 재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근대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다. 이것은 더 나아가 박성권 가계의 진정한 계승 구도에서도 형걸의 필연적인 승리를 예감하게 하는데, 만아들 형준의 타락은 이를 뒷받침한다. 사실 형준과 형걸은 형선의 혼례를 기점으로 같은 욕망에 빠져든다. 자기의 사업을 갖지 못한 형준은 무료함에 지쳐가고, 서자라는 신분적 굴레로 인해 집안에서 둘째라는 서열을 형선에게 빼긴 형걸은 자기 처지에 좌절감을 느낀다. 형준과 형걸 모두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괴로움을 애욕으로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막서리 두칠의 처인 쌍네이다. 그런데 쌍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이 첫 번째 경쟁에서부터 형준은 형걸에게 패배한다. 이 패배는 그가 놀이의 근대적 재편으로부터 소외된, 구시대의 유산을 계승한 자라는 한계로부터 기인한다.

형준은 박성권의 절대적 권위와 만아들이라는 우월감에 갇혀 근대교육을 거부함으로써, 동생들과 달리 근대라는 새로운 문물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 따라서 고리대금으로 부를 축적한 아버지의 원죄를 가업으로 물려받을 그에게 허락된 것은 무료하거나 타락하는 것뿐이었다. 이 점에서 본다면 형준이 '삼십육계'에 빠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청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육체적 역동성과 쾌기를 거세당한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놀이는 노름뿐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육체적 놀이의 부재를 메우면서 형준을 타락시킨다.

그는 아까부터 꿈을 꿀려고 안타까워 하는 것이다. 뿔이던 꿈만 꾸면 곧 그놈을 풀어서 해몽을 한다음, 통수로있는 신도감(申都監)을 따라서, 삼십육계(三十六界)

의 턱대가 앉아서 기다리는 박리방네 뒷방으로 갈참이다.²⁸⁾

밥먹으면 잠을 잔다고 야단이었고, 잠을 잔다고 누으면, 꿈이 꾸여지이다, 라고, 일부러 손을 숨통있는 가슴에다 올려놓고 빌어섬기며 지탈이고, 자다깨어나선 미친놈 모양으로 눈이 멀게서 꿈을 풀어보노라고 정신이 빠져 앉어있는 것이다.²⁹⁾

형준의 타락은 동시에 고리대금으로 부를 축적한 박성권의 성공이 투전판에서의 일시적 승리에 불과함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그의 타락이 끝없는 잠과 동반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흔히 계몽주의적 상징 속에서 잠과 꿈은 계몽과 개화의 반대적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그것은 죽음처럼 침체되어 있는 그 무엇,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에 편입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꿈을 꾸 뒤 그 해몽을 바탕으로 글귀를 적는 이 노름은 다분히 상징적이다. 형준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근대의 계승자라면, 형걸은 새롭게 도래하는 근대의 계승자이다. 따라서 이 애육의 관계에서 승리자가 형걸이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대하』에서 형준과 형선뿐만 아니라 아버지 박성권이 욕망하는 모든 여인들—각각 쌍네, 보부, 부용은 모두 형걸에게 전적인 애정을 드러낸다. 박성권과 형준, 더 나아가 형선조차도 범접할 수 없는 형걸의 절대적 우위는 바로 근대교육과 운동하는 신체이다. 형걸이 지닌 육체적 아름다움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는 작품의 곳곳에서 묘사된다.

「응, 박참봉네 작은 아들하구 나팔불레 가지는가부든.」 하고 올케도 천연히 대답한다. 그래 그쩍에 본 키크고, 눈이 으글으글하고, 웃으면 흰니가 새타양게 내

28) 277~278쪽.

29) 292쪽.

보이는 총각이, 박참봉네 작은아들인것을 비로소 알었고 이따끔 헛웃 그 얼굴이 그의 눈앞을 지내가듯하였다.³⁰⁾

그것이 얼마전에 꿈도아닌 생시에, 도련님 중에서도 가장 미춧하고 끼긋한 두 무릎 도련님과, 어엿하니 길우에서 버러졌다니, 귀신에 홀렸다는생각을 가짐도 과시 무리는 아니었다.³¹⁾

그학도, —이름도 성도 몰오지만 두손목에서 울리는 억센 혈맥을, 그는 한참 동안이나 제손목에 넣고본일이 있다.

항우같은 두 외방사람을 꺾우러 트리기는 했으나, 한참 어울려싸울땐 비명을 울리리만큼 그도 피곤하얏을것이다. 비호처럼 몸을뺐아 행길을건너 강기슭으로 다라나는 학도의 뒤를 쫓아, 부용이는 저도 모르는 흥분에썩여 골목길을 뛰어내려 왔든것이다.³²⁾

형걸을 자신과 혼례할 박참봉의 둘째 아들 형선으로 착각했던 형선의 아내 보부, 너무나도 싫은 두칠이와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결까지 생각하던 쌍네, 자신을 위해 길에서 불한당과 싸워준 형걸을 사모하게 된 기생 부용. 그녀들의 매료시킨 것은 형걸의 강인하고 아름다운 육체였던 것이다. 결국 형준의 타락과 형걸의 성장이라는 대비는 근대적 신체라는 '몸'의 담론을 통해 변화되는 일상적 삶의 모습을 독자에게 실감하도록 만든다. 놀이의 근대적 재편 과정으로부터 탈락한 자와 편입된 자를 극명하게 대립시킴으로써, 김남천은 근대의 논리가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입되는 과정을 형상화했던 것이다. 결국 『대하』에서 형걸의 신체는 그대로 식민지 조선의 근대라는 전 과정을 육화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의미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근대의 기원을 재조명하고자 했던 그의 의도는 바로 여기서 보다 분

30) 47쪽.

31) 144쪽

32) 313쪽.

명해진다.

4. 결론

『대하』의 제재와 작가의 태도는 내가 작년도에 발표한 『현대 조선소설의 이념』과 『풍속과 세태』 등, 일련의 장편소설 개조론에서 누차 말해온 '연대기를 가족사의 가운데 현현(顯現)시킨다'는 일구로써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 시대는 30년 전부터 현대까지, 서도의 어느 고을 신흥 부호의 가족사(홍망기)로써 말해볼 수 있다.³³⁾

김남천은 『작품의 제작 과정』에서 『대하』의 창작의도를 가족사 연대를 통해 근대의 기원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하』의 소설적 현재가 1900년대 말에서 1910년대 초반으로 설정된 것은, 그 시기 야말로 김남천이 살고 있는 1930년대라는 시대가 가진 모든 근대적 조건의 기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근대의 기원을 재조명하는 작가 김남천의 관심은 운동회에 집중되었다.

운동회는 일제 식민 수탈의 예비단계로서 시작되었지만, 조선에서 운동회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데는 조선사회 내부의 요구가 보다 강렬하게 개입되었다. 무엇보다도 운동회는 부국강병이라는 목표 아래 애국심을 고취하는 성격을 가졌다. 따라서 일제의 침략 야욕이 본격화되는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대규모 운동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외세의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근대국가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가 절대적으로 요

33) 김남천, 『작품의 제작과정』, 『조광』, 1939.6.; 정호웅·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I, 박이정, 2000, 498쪽.

구되었기 때문이다. 운동회는 훈련을 통해 다져진 이러한 신체를 겨루는 경합의 장이었고, 이를 통해 서로의 공동체 의식을 애국심으로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되어주었다.

그런데 김남천이 『대하』에서 운동회의 이러한 역할을 재조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중적인 근대스포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이루어졌던 193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대동아전쟁으로 치달았던 일본 제국주의는 근대스포츠를 통해 내부적 결속을 다지고 전쟁에 대한 불만을 잠식하고자 했다. 일제의 이러한 의도와 맞물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사건은, 조선 내부에서도 근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높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조건들로 인해 김남천은 『대하』에서 근대의 기원으로서 운동회라는 제도를 새롭게 호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소설의 인물 형상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전까지의 소설에서 남성 지식인 주인공에 대한 대부분의 묘사는 그가 얼마나 학문적이고 깊은 고뇌에 찬 인물이었는지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였다. 이는 한 개인의 정신적인 고양을 통해 근대에 도달할 수 있음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하』에서 형걸은 전혀 다른 유형의 인물로 거듭난다. 그는 호전적이고, 민첩하며, 생각하기보다는 행동하기를 더 즐기는 인물이다. 그의 근대성은 그의 정신보다는 육체를 통해 드러나며, 그것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매력으로 작품의 서사 전체를 장악한다. 김남천은 운동회로부터 박성권의 세 아들 중 가장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형걸을 근대의 계승자로 거듭나게 할 수 있었던 동력을 도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하』의 서사가 가진 한계는 바로 이러한 형걸에 대한 집중, 아니 보다 엄밀히 말하면 '몸'에 대한 집중으로부터 시작된다. 근대적 신체의 도래를 실감하고 그것을 형걸이라는 인물을 통해 육화하

면서도, 그 구체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운동회 뒤에 숨겨진 권력의 문제를 조망하는 것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운동회라는 근대적 축제를 형걸이라는 한 인물의 개인적인 성장과정으로 국한시킴으로써 발생된 『대하』의 서사적 한계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운동회를 둘러싼 모든 욕망과 갈등이 형걸이라는 개인에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운동회라는 근대적 신체의 향연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작동하는 제국주의적 권력과 식민지 자본주의 사이의 관계망은 희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남천, 『대하』, 백양당, 1947.
이기영, 『봄』, 풀빛, 1989.
『황성신문』, 1907.5.3., 1907.10.26.

2. 논문과 단행본

- 강유진, 「근대 주체로서의 성장과 가족로망스」, 『語文論集』 39, 중앙어문학회, 2008, 145~160쪽.
권혁준, 「김남천 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1~104쪽.
김동환, 「1930년대 후기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풍속'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83~101쪽.
김성학, 「근대 학교운동회의 팽창: 그 실태와 동인」, 『한국교육사학』 33권1호, 한국교육사학회, 2011, 1~33쪽.
김영선, 「1930년대 가족사 소설 '인물'의 가문의식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84쪽.
김옥희, 『일본 근대문학과 스포츠』, 소명출판, 2012.
김윤식, 「1930년대 후반기 카프문인들의 전향유형 분석」, 『한국현대문학사상사론』, 일지사, 1992.
_____, 「자기 고발과 주체성 재건에 대하여」, 이상갑 편, 『김남천』, 새미, 1995.
김재남, 『김남천 문학론』, 태학사, 1991.
김종욱, 「김남천의 <대하>에 나타난 개화풍경」, 『국어국문학』 147, 국어국문학회, 2007, 103~123쪽.
김주리, 「근대적 신체 담론의 일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13, 한국현대문학학회, 2003, 17~49쪽.
김지형, 「김남천과 임화 문학의 식민지 이성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301쪽.
김현숙, 「개항기 '체육' 담론의 수용과 특징」, 『한국문화연구』 2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4, 115~147쪽.
류종렬, 「1930년대말 가족사 연대기 소설의 개념과 특성」, 『한국문학논총』 11집, 한국문학회, 1990, 365~378쪽.

- 배 준, 『역사를 소설화하는 전향자의 세대론적 시선과 목소리』, 『현대문학의 연구』 5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169~211쪽.
- 백 철, 『〈대하〉를 독함』, 『동아일보』, 1939.2.8.
- 송하춘, 『1930년대 후기 소설논의와 실제에 관한 연구—김남천의 〈대하〉를 중심으로』, 『인문논집』 35,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990, 1~16쪽.
- 신상성, 『김남천 연구』, 지학사, 1992.
- 안함광, 『최근의 작품경향』, 『인문평론』, 1940.7.
- 요시미 순야, 『국민 의례로서의 운동회』, 『운동회—근대의 신체』, 요시미 순야 외, 이태문 역, 논형, 2007.
- 원은영, 『가족사연대기소설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109쪽.
- 이덕화, 『김남천 연구』, 청하, 1991.
- 이영애, 『김남천 소설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1~102쪽.
- 이재선, 『김남천 소설의 양상』, 『현대문학』, 1989.6, 362~376쪽.
- 이주형, 『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1~186쪽.
- 이현식, 『정치적 상상력과 내면의 탄생』, 『한국근대문학연구』 24, 한국근대문학회, 2011, 427~453쪽.
- 임화, 『최근 소설의 주인공』, 『문장』, 1939.9.
- 정호용·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1, 박이정, 2000.
- 한승옥, 『1930년대 가족사 연대기 소설 연구』, 『송실어문』 5집, 송실어문학회, 1988, 17~39쪽.
- 황의룡, 『일본과 한국의 근대화와 운동회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0권2호, 한국체육과학회, 2011, 3~16쪽.

Abstract

School athletic meeting, modernity of amusement
and discourse of bodies
– a study of Kim Nam-cheon's *Daeha*

Ryu, Su-Yun (Inha university)

A body is a core which goes through modern times. This thesis intends to read *Daeha (Large river)* with the discussion of modern bodies. Hyeong-geol, who is a main character in *Daeha*, expresses his modernity by his body. 'School athletic meeting' shows the physical exercise and competition as modern spectacle. Also it pulls cognitive alteration about bodies as modern symbol. We have to pay attention that it involves effects to reorganize modern amusements and to exhibit them. So this thesis analyze 'school athletic meeting' as a modern educational system, and considers its effect to embody characters of *Daeha*. So we can analyze Kim Nam-cheon's *Daeha* as the text which shows a change from a thinking body to a exercising body.

(Key Words: Kim, Nam-cheon, *Daeha* (Large river), amusement, body, school athletic, meeting, exhibit, modern education, and popularizing sports)

투고일 : 2015년 2월 28일 투고

심사일 : 2015년 4월 4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5년 4월 12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5년 4월 15일